

중국 법문사 聖寶 대만 나들이



◇법문사 봉진신보살상(佛眞身菩薩像)

진시황릉에서 발견된 병마용(兵馬俑)과 함께 세계최고의 보물로 평가되는 중국 협서성 서안 법문사(法門寺, 방장 淨一)의 불지(佛指, 부처님 손가락사리)와 지하궁전의 국보들이 대만에서 전시된다.

대만 불교계는 2월 10일경부터 2개월간 중국 법문사 성보(聖寶) 300여점을 타이베이 금강정사 등

에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불광산 사물 중심으로 한 대만 불교계가 중국불교협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뤄낸 것으로, 중국-대만 불교교류사의 일대 쾌거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비롯한 대량의 국보가 중국밖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벌써부터 세계인들의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운대사는 법문사의 유물이 어렵게 중국에서 나온 만큼 한국에서도 전시되었으면 하는 원을 세우고 있다고 서울 불광산사측은 밝혔다. 9세기 중국 당나라의 황실 사찰이었던 법문사는 중국의 사찰 가운데 기이한 전설이 가장 많이 전해 내려온 곳이었다. 특히 법문사에는 당나라 황실의 보물이 묻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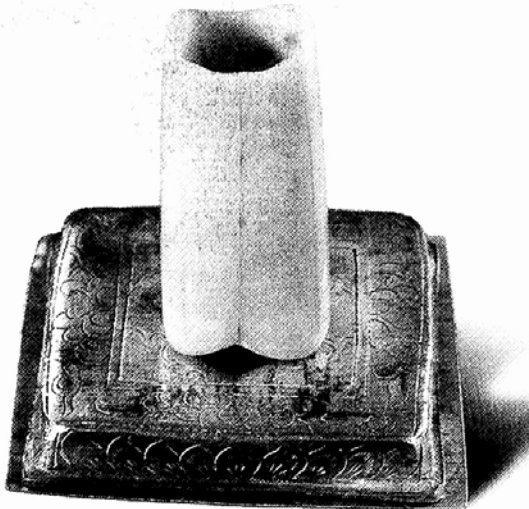
유물을 발굴, 정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천년 지하궁전인 모습을 드러냈다. 중국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 제9대 기적'이라고 불렀다. 부처님 진신사리 4과를 비롯 아육왕탑(阿育王塔), 봉진신보살상(佛眞身菩薩像) 등 지하궁전에서 출

아져 나온 2천9백 여점의 진귀한 성보들은 불교문화 연구는 물론 당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그리고 해외 문화교류에 대한 연구의 깊이를 더해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김재경 기자 jkgm@buddhapia.com

내달 10일 唐 황실 지하궁전 유물 등 300점 중·대만 불교교류 전기... 한국전시도 발원

2년전 우리나라에서도 10만여부가 넘게 판매된 <법문사의 비밀>(일빛페이판 책으로 잘 알려진 법문사의 성보는 중국의 국보중의 국보, 즉 특급문화재로 지정돼 해외 전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그동안 전시된 유물도 10여점에 불과했다. 이번 전시는 대만불교계를 대표해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불광산사 성운(聖雲)대사가 중국의 강택민(江澤民) 주석을 직접 만나 허가

있는 지하궁전이 있었는데, 당의 멸망과 함께 천년간 닫혀있던 지하궁전의 문이 1986년 법문사에 있던 진신보탑(眞身寶塔)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열리기 시작했다. 진신보탑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13층 보탑으로 근처 지반이 함몰되면서 1981년 탑의 서쪽면이 붕괴됐고 남은 탑의 반쪽도 1986년 완전히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협서성 정부는 보탑의 재건을 위해 근처 지반과



◇중국 밖에서는 처음 전시되는 불지사리(佛指舍利).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21. 극락에도 고통은 있다

정토신앙은 가장 대중적인 불교 신앙이다. 대중은 불교의 깊은 정신성과 깊은 수행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죽어서 좋은데 가자"라는 인간의 비연(悲願)은 시대와 국가를 초월한다. 그래서 정토왕생을 설하는 정토불교는 조선의 유교적 호 관념과 습속되어 아직까지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희구와 피안애의 동경을 설하는 정토불교는 귀족으로부터 서민 대중에 이르기까지 무구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정토불교는 현대 한국 불교도들 특유의 기복신앙과 함께 대중불교를 형성하고 있다. 정토삼부경의 하나인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는 극락세계는 불교를 수행하는 인간에게 주어진 최상의 환관념과 습속되어 아직까지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내세에 대한 희구와 피안애의 동경을 설하는 정토불교는 귀족으로부터 서민 대중에 이르기까지 무구한 신앙의 대상이었다. 지금도 정토불교는 현대 한국 불교도들 특유의 기복신앙과 함께 대중불교를 형성하고 있다.

중생(度苦衆生)이다. 이 구절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극락에도 고통 받는 중생이 있으며 불 보살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경전을 읽어 나가다가 무엇인가 교의적 해석의 벽에 부딪칠 때, 우리를 돕는 것은 바로 역대 스님들이 남긴 신성한 주석, 즉 소(疏)이다. 우리는 옛 스님들의 연구를 통해서 1천년 전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것이다. 진정 고통을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미 1천년 전에 입적하신 분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선도(善導, 613-681)스님의 <관무량수불경소>의 해당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선도스님은 7세기의 동·서양을 통틀어 손꼽을 만한 종교사상이며 위대한 실천자로서 그의 정토경전에 관한 주석서들은 정토에의 순수한 열망과 신심으로 인간의 속악을 한 길로 초월하여 정토로 나아가는 길을 설하고 있어서 나는 항상 마음 깊은 곳에 선도 스님의 순수한 열망을 느끼곤 한다. 자 그렇다면, 선도스님 그 분이 이 "극락에도 고통은 있는가"는 난제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이미 타경>에서는 이르되 "그 국토에는 衆생이 없고 오직 여러 가지 즐거움만 있으므로 이름하여 극락이라 하거늘 무슨 까닭으로 이 경에서는 분신이 설법하여 고통을 제도한다고 하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는 질문을 제시하고, "정토에도 지전(地前)이 지상(地上)을 바라는 고(苦)가 있으며 하(下)가 상(上)을 구하는 고(苦) 있으므로 하(下)로 미러한 상(上)을 보여준 다.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는 정토는 실로 극락왕생의 비연(悲願)을 품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이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인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처럼 오락(樂)의 고통이 없고 극락에 왕생한 중생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극락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관무량수경>의 한 구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먼저 본경의 제11제(觀無量壽)의 한 단락을 보면 '대세지보살이 앉을 때 칠보국토가 일시에 동요하고 아래로는 금광(金網)이 이르기까지 위로는 광명왕불찰에 이르며 그 중간에는 무량진수의 분신(分身)과 분신(分身)을 본신(本身)대세가 모두 극락국도에 운집하여 허공의 연화좌에 앉아서 묘법을 연설하여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설한다.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구절의 원문은 분명히 '고

종교적 고뇌와 갈등 사바의 고통은 달라

빛이 백가지 보배색을 가진 새로 변화하여 슬프고 청아한 음성으로 함께 울며 항상 염불, 염불, 염불한다"는 기사는 불전에서도 보기 드문 초월(超越)하고도 미려한 상상력을 보여준다. <관무량수경>에서 설해지는 정토는 실로 극락왕생의 비연(悲願)을 품고 있는 인간의 상상력이 묘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세계인 것이다. 오늘의 문제는 바로 이처럼 오락(樂)의 고통이 없고 극락에 왕생한 중생은 누구나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을 짓는 극락도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관무량수경>의 한 구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것이다. 먼저 본경의 제11제(觀無量壽)의 한 단락을 보면 '대세지보살이 앉을 때 칠보국토가 일시에 동요하고 아래로는 금광(金網)이 이르기까지 위로는 광명왕불찰에 이르며 그 중간에는 무량진수의 분신(分身)과 분신(分身)을 본신(本身)대세가 모두 극락국도에 운집하여 허공의 연화좌에 앉아서 묘법을 연설하여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한다'고 설한다.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한다'는 구절의 원문은 분명히 '고

종교 정상회의 열려

불교·기독교 등 각계 지도자 로마에

요한 바오로2세 초청

로마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초청으로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평화와 테러 종식을 기원하는 '종교정상회의'가 24일 열렸다. 로마교황청은 22일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 불교, 조로아스터교 등 전세계 종교지도자 200여명이 참

가하는 집회가 24일 로마근교의 성 프란시스코 성당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교황바오로 2세가 9·11 테러가 발생한 뒤인 지난해 11월 각 종교지도자들의 회합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종교지도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전세계인들 앞에서 종교가 분쟁과 증오, 폭력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팔 보드하이라 사원에서 세 바하두라 수상(왼쪽에서 첫번째)과 함께 경내를 둘러보는 콜린 파월 미 국무 장관(두번째).

네팔 티베트 불교사원 순례

파월 美 국무, 고위층으로는 30여년만 처음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일본과 인도, 파키스탄 등을 순방한 미 국무장관 콜린 파월이 네팔 카투만두를 찾아 티베트 불교계 사원을 순례해 왔다. 에이피 통신에 따르면, 19일 파월 국무장관은 네팔의 기아넨드라 국왕과 쉐 바하두라 드바 수상과 함께 보드하이라 사원의 경내를 둘러보며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과 함께 시종일관 경건한 태도와 예의를 갖추었다는 것.

한편 미 행정부의 고위층으로는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한 파월 국무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네팔에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단체인 '인민 방위군'에게 무모한 살상을 중지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했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 나카무라 하지메, 불교의 진수를 말한다. 일본 불교학의 태두인 저자 나카무라 하지메(中村元)가 현대의 첨단 과학을 앞지른 부처님의 깨달음과 화엄사상을 정교하게 설명했다. 제1장 근대적 '자아'를 넘어, 제2장 무한한 과거와 연결된 자아-석존의 깨달음, 제3장 상호연관된 우주관-화엄철학, 제4장 자비의 사상-불교의 근본윤리, 제5장 자비의 실천-무제(無助)의 7보시 등으로 구성. 일본 레이다쿠(麗澤)대출판부 펴냄.

• 유식초보-마음을 응시하는 불교의 지혜. 의식이 없는 심층심리의 존재를 설명, 치밀한 분석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마음을 해명하는 유식(唯識). 그것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철저히 응시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나라(奈良) 약사사(藥師寺) 원로(圓首)인 저자 마츠쿠보(松久保秀胤) 스님이 난해한 유식을 평이하게 해설했다. 유식 입문서의 결정판. 일본 스즈키(鈴木)출판사 펴냄.

해의 불서. 밀한 분석으로 망상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마음을 해명하는 유식(唯識). 그것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철저히 응시하는 것으로부터 생겨났다. 나라(奈良) 약사사(藥師寺) 원로(圓首)인 저자 마츠쿠보(松久保秀胤) 스님이 난해한 유식을 평이하게 해설했다. 유식 입문서의 결정판. 일본 스즈키(鈴木)출판사 펴냄.

법화삼부경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관보현보살행법경)

국배판 1,300p
값 100,000원

저자 - 석오관 황상

법화삼부경을 한문과 한글 번역을 곁들여 읽기 쉽게 만들었으며, 품품마다 앞장에 그림(금빛 탕화)을 넣어 독자들의 시각을 밝게하여 佛心을 돈독하게 하였다

아울러 우리의 소원 남북통일과 더불어 韓, 中, 日의 동양 삼국이 영원한 우방으로서 전쟁이 다시없기를 바라고 세계한국이 한식구(一佛乘, 宗生도 하나, 세계도 하나, 진리도 하나)가 되어 平等無差別의 세계가 되기를 구원실성 석가모니 부처님 앞에 발원하였다.

역대 법화경조사 영정 어록 삼입

실상묘법연화경요목 석묘각 역편 4×6판 / 870면 / 값 35,000원	묘법연화경요목 석묘각 역편 4×6판 / 870면 / 값 35,000원	민화 신라의 순교자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이차돈 성사 신국판 / 158면 / 값 8,000원
알기쉬운 석묘각 역음 법화경 신국판 / 176면 / 값 6,000원	민화 효도의 대성인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진목대사 신국판 / 264면 / 값 10,000원	부모가 책임져 할 중생의 영혼 석묘각 역음 아가야, 용서해 다오 신국판 / 270면 / 값 10,000원
법화경과 원자 물리학 석묘각 역음 신국판 / 266면 / 값 8,000원	민화 신라의 큰별 석묘각 글/김명식 그림 자장율사 신국판 / 274면 / 값 10,000원	각세진경(覺世眞經) 석묘각 역음 4×6판 / 값 1,000원

소원성취 명당 육기(六氣)방

이런분에게 사용하십시오.

1. 사업을 시작 하시는 분
2. 사업이 잘 안되시는 분
3. 하시는 일들이 잘 안풀이시는 분
4. 가정에 불화와 우환이 많으신 분
5. 소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
6. 돈이 새어 나가고 융통이 안되시는 분
7. 공부를 안하고 자녀가 말성을 부리는 분
8. 부부화합이 잘 안맞아 힘드시는 분
9. 집터나 묘터가 안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10. 위험한 일이나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분
11. 장사가 잘 안 되시는 분
12. 관재구설과 액운이나 삼재로 시달리는 분
13. 수행성 합격 기원을 위하여 미리 준비 하십시오.

※ 좋지 않은 사주팔자라 할지라도 노력하면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 명당육기(氣)방 051) 865-9933
864-7878

미국 일본 호주 등등에서 사용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홈페이지를 보십시오.
홈페이지 : www.6kibang.co.kr

가격 : 1호 10만원, 골드 1호 30만원, 골드 2호 40만원
흑운육방, 집터, 묘지, 조상합동묘, 3천 카우스 25만원 홍혈장전용 30만원